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고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해 질풍처가리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 지원자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청년들은 언제나 당을 따라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화 궤도는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다진 맹세를 지극히 백두산선군청년돌격대원들과 건설자, 지원자들과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고있다.

1호발전소연체우에 취동조립과 해체를 위한 기중기 설치, 2개의 플랫폼 설치 확보와 10여대의 혼한터 지공까지, 연체 콘크리트입력에 3개 미터반향 중장비까지...

지휘부의 대담하고 용이 큰 작전에 치밀하고도 기동적인 작전에 따라 백두산선군연체 구간에 콘크리트입력투를 집중적으로 맹렬히 밀려올려 4월 하순부터 지금까지 지난 시기 한해경공공콘크리트입력의 5.6배와 맞먹는 량의 연체 콘크리트를 하였다. 그들의 힘찬 노력으로 4개월 남짓한 사이에 수심1m 더 높여 추겨올렸다.

지난 27일 백두산선군청년

돌격대원들과 건설자들은 드디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연체의 관건적대상인 1호발전소연체 콘크리트입력을 성과적으로 종료하였다.

조선청년들의 자랑스런 전통을 이어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고 백두대지에 대대손손 물려줄 조국의 만년제부를 일떠세우자고 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슴오른 손오와 하늘같은 믿음에 힘입어 그대부터 백두전역은 말그대로 거대한 불도가니로 변하였다.

모든 련단, 모든 단원들이 정열한 공격서열을 짓고 높이 세운 목표를 향해 파급히 노력하는 속에 남마다 시간마다 지 솟아오른 연체 한지한지와 끝없이 이어진 물길굴 한만m를 위해 백두청춘들이 바친 애국충정은 찬소로 열렬하고 지극한것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바라시는 선군시대의 훌륭한 젊은이가 되려는 일념으로 평양시러단 방철민, 고현철, 남포시대대대장 김광복, 한성룡, 평안북도려단 대장 장경성 등 부를 비롯한 모든 청년돌격대원들이, 대원들은 청년들의 발걸음속도가 높아야 청년들의 전진속도도 빨라진다고 하면서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 남뉘어 어깨를 들이밀고 기적과 혁신의 불꽃을 열어나가

수도 평양의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우후죽순처럼 일떠서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소로 온 나라 인민들의 뜨거운 애국의 마음과 지성이 그칠새없이 달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선군혁명의 한길에서 우리 당과 사상과 뜻을 같이하고 생사교과를 함께 하며 조국과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진정한 동지가 되고 일심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평양시맹위위원회에서는 나맹원들속에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도록 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은 진공적으로 시범을 진행하는데서 혁신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게 하였다.

특히 대동강구역, 신교구역, 동대원구역의 많은 나맹원들은 지난 3월말부터 돌격대원들과 함께 건설장기대정리 등을 맡아 건설자료를 로적으로 적극 지원하였다.

본사기자 김지곤

이들은 당의 송고한 뜻을 받들고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는 미더운 건설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많은 지원물자들을 마련하여 그들에게 안겨주었으며 철합에는 철육의 정을 담아 리발과 옷수리도 해주면서 건설자들을 성심성의로 도와주는 미풍을 발휘하였다.

평양군명칭 음악종합대학에서는 30여명의 교원, 학생들로 기공예술훈예를 짓고 건설현장에 자주 찾아와 공연을 진행하여 공사장정에서 부글부글 끓어번지게 하였다.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에 뜨거워 애국의 마음을 버쳐가는 사람들과는 철도성원돌격대 대대장도 김수현동무와 체육성 체육시설관리국 로동자 배양청동무도 있다.

이들은 물리대원으로서 건설장에서 총정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면서 여러차례 걸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도록 하고 건설자들을 적극 고무하였다.

건설현장에서 자체 보장과 인수사업을 맡은 배양청동무는 높은 책임성을 발휘하여 건설자들이 맡은 파제를 제 기일에 집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대외경제성 부원 장은정동무와 외고산산업총국의 사 김순옥동무도 10월의 대축전장을 자랑한 로력적신물을 안고 몇몇이 들어설 불타는 마음을 안고 많은 일을 책임적으로 수행하면

체육관이 새로 일떠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은 나라이 체육열풍을 더 세차게 일으켜야 합니다.》

은 나라이 체육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이방군에서 군체육관을 새로 훌륭하게 건설하였다. 건축면적이 1200여㎡에 달하는 체육관에는 풍구, 배구, 정구, 마드민트, 탁구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체육기는 물론 실내수영과 증경기도 할수 있는 조건이 그르하게 갖추어져 있다. 훌륭한 푸러진 선수대기실도 갖추어져있고 체육관바닥에는 혼한터와 경기에 편리하게 쪽무이널을 깔았다. 수천석의 관람석을 가진 경기장을 배경으로 푸르른 소나무숲에 자리잡고있

는 체육관의 경건은 불수록 이채롭다.

군에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이 대중체육을 즐기도록 광범하게 리용할수 있도록 체육관을 새로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었다.

군의 책임일꾼들은 체육관설계를 특색있게 하도록 떠밀어주었다. 그리고 경건이 있는 일꾼들로 건설지휘부를 조직하고 세번트와 통나무, 철근을 비롯한 자재와 물자들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도록 하였다. 최인상동무를 비롯한 건설지휘부일꾼들과 건설자들은 여러가지 앞선 공법들을 받아들여면서 건설을 힘있게 다그쳤다. 이들은 기초파기와 골조공사를 짧은 기간에 와닥히 해제는데 이어 모든

후대들에게 물려주는 숭고한 정신, 값비싼 재부

사리원시 신양동 37인민반 살고있는 전쟁로병 강진순로인

자로는 눈길을 멈추었다.

꽃이 사람의 건강과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는데 한참 읽어보던 그의 마음속에는 어머니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을 향기로운 꽃속에 오신 강진순로인이 꽃과 인연을 맺게 된다는 가슴뜨거운 이야기가 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전향의 그날로부터 전후 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의 나날에 변함없이 당과 수령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전향로병들의 숭고한 정신과 그들이 조국앞에 세운 빛나는 위훈은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이 소중한 귀중한것입니다.》

지금은 너무나 오래된 위대한 장군님께서 사리원시를 꽃의 도시로 만들게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고 은정깊은 조지를 저지주시였을 때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사리원시민들 누구나 다 그러하였지만 강진순로인이 받아안은 충격은 남다른것이였다.

상해산언덕에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 주변관리사업을 맡고있던 그는 너무나도 기쁘게 잘 모시고 장군님을 충직하게 받들어오다가 길에서 할 일이 무엇이었는가 생각하던 그는 어느날 신문에서 실린 상사

수령의 기쁨에서 인생의 영광을 찾을수 있는 찬란한 전사만이 흘릴수 있는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랑십과 의리의 결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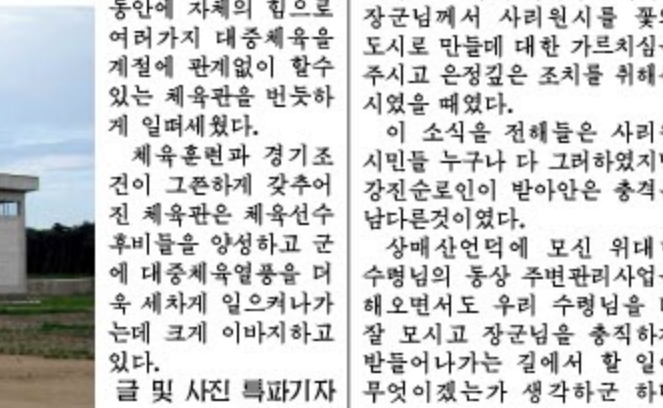
강진순로인은 더욱 열심히 꽃을 가꾸어 사리원시인이던 김수산대양중전과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건설장을 비롯하여 470여개 단위에 120여kg에 달하는 꽃씨들을 보내주었다.

지금은 그의 집 앞방에는 갖가지 꽃씨들로 가득찬 화합들이 쌓여있다. 그것은 수령의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하기 위하여 한 전향로병이 총정의 땅을 바쳐 마련해놓은, 혁명의 2세대가 땅의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가장 값비싼 재부이다.

사리원시에서 열린 화합의 총대 대회에 함께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의 마음을 자손들에게 물려준 로병, 할아버지, 아버지세대가 간직한 당과 수령에 대한 충정과 의리를 그대로 받아온 강진순로인과 함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을 결여하는 강진현, 김성옥, 강은성동무들의 한평생의 리정표가 새겨져있는 꽃씨화합들을 보여 시민들은 생각한다.

혁명의 전세대로부터 우리 가 제일전투 불려야 할 재부, 우리 역시 먼 후날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재부는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정과 의리에 대한 것이다.

본사기자 승철진



오늘도 울리는 심장의 박동소리

동대원은 하피복공장 지배인이었던 최용남동무

비록 심장의 박동은 멎었지만 어제 또 오늘도 사람의 추억속에 길이 남아있는 삶은 영원한것이며 우리 모두에게 참된 생애에 대한 진리를 새겨주고 있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된 삶의 보람과 가치는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헌신하면서 집단의 사명과 임무를 받으며 사는 데 있습니다.》

지난 6월 어느날 최용남동무는 공장일꾼들의 한결같은 권고에 의해 김남유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었다. 지난 시기부터 느꼈던 심장이름이 그즈음에 와서야 더 심해졌던것이다.

의사들의 피어서는 그에게 핵심 증자라는 진단을 내리고 당장 입원치료를 받을것을 요구하였다. 병원에서 의사가 일하는 안해도 이만한 꼭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는 눈물이 핑하듯 말하였다.

그녀는 안해에게 최용남동무는 말했다.

《우리 공장은 올해 인민경제 계획을 달성한 7000건으로 무조건적 수행하겠다는 사람이 바로 우리 지배인동지였습니다.》

눈물에서 맺은 목소리로 최용남 지배인에게 대하여 말하는 중일원들의 추억은 향으로 뜨거웠다. 다섯해 전 어느날이었다. 당장 6500을 맞으며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것을 위해 목숨을 세우고 온 공장이 사회주의경쟁의 열풍속에 불기둥을 활짝 피어날 때 뜻밖에도 기대 부가 동음을 멈추었다. 중일원들의 얼굴색이 사시에

어뵈웠다. 모두가 인내와 애정의 불꽃을 물려주고 있는 최용남동무가 공장의 기술자들과 함께 다같이 헌신하는 모습이였다. 《당에서 품어준 키운 재래공인, 대학졸업생임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공장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람!

그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였다. 대학시절에 그려왔던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면서 열심공부했다. 과학기술서적들과 새로운 기술자료를 그의 손에서 떨어질줄 몰랐다. 그 나날에 천공기 및 기타측정기를 가진 전문기술자개발을 비롯하여 그가 생산에 장안되던 새 기술만 하 여도 20여건이나 되었다. ... 이날 최용남동무는 공장의 기술자들과 함께 퇴장을 할때 짧은 시간에 설비를 되살려냈다. 그리하여 뜻깊은 그해 인민경제 계획을 무탈히 넘어가게 수행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생활의 어느 구석에서든 자기를 위해 내는 시간을 조금도 찾아가기 힘든 참된 일꾼이였습니다.》

부인 허정숙동무는 이렇게 말하고는 수어를 들었다. 몇몇해 전 초겨울이었다. 현장을 돌아보던 최용남동무는 가슴이 뭉클 내려앉는것만 같았다.

몇명의 처녀청년들이 기대어 장군님 손을 잡고 일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제야 그는 현장을 온도가 낮다는것을 느끼었다. 그날 저녁 최용남동무는 공장 초급당일꾼과 마주앉았다. 《현로이 없습니다. 생산이 중요하다고는 하면서도 그 당당자이 중일원들에게는 냉정을 들었으니 말입니다. ... 그들이 제 딸들이라면 그랬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최용남동무의 목소리는 저기서 갈라졌다. 그녀는 지배인에게 초급당일꾼은 한창의 도면을 내놓으며 말했다. 《제 잘못도 없습니다. ... 이 제 지배인동지가 설계했다면 부득이하게라도 설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투가 한창이던 어느날 최용남동무는 집에 전화를 걸었다. 《어보, 우리 중일원들이 전투를 하고있는데 무얼 좀 준비해가주실수 없겠습니까?》

그때 대답했던 갑자기 울먹거리는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오늘이 내 생일인데 잠깐 들어왔다 가면 안되나요?》

그때에 중수회기를 내려놓은 최용남동무는 한동안 움직임을 몰랐다. 아버지를 종이 기다렸을 딸의 모습이 눈앞에 언저졌다.

가죽들이 미안스러운 마음

백두전역으로 이어진 복무의 길

광강도 락얌군 읍에서 살고있는 영예군인 백인산동무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8, 28청년돌격대원들과 국운수기룡터단 지휘관들과 운전자들은 대동강자락들의 가슴을 높이는대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그들은 마감단계에서의 무용백비대리설치작업에 여념이 없는 로동자들의 일선도 도와나섰다. 그녀는 가족들의 모습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는 최용남동무의 눈길을 찾아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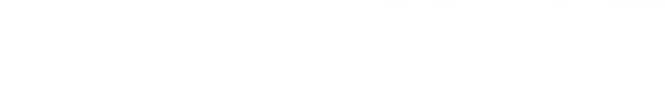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끝이 없다. 한 중일원의 기적이 뜻밖에도 재난을 당하면서 때때로 집도 지어주고 집에서 많은 생활물들을 들고오는 이야기며 일찍 부모를 잃은 한 처녀를 위해 8년 세월 그의 생활을 친아버지의 심정으로 따뜻이 돌봐주고 결혼상까지 차려준 이야기, 공장에서 오래동안 일해온 한 기능공이 변함없이 혁신자의 영예를 떨치도록 적극 도와준 이야기... 이런 최용남동무였기에 그의 희생은 두고 중일원들이 아니라, 그를 기뻐하는 모든 사람에겐 귀하게 여겨진다.

《중일원들은 하피복공장》이라는 헌관이 무엇이든 안겨왔다. 최용남지배인이 공장을 떠나며 때때로 정답게 바라보았던 헌관, 제 집주소보다도 더 귀중히 여기며 나의 공장, 나의 리더와 정답게 바라보았던 그 헌관을 바라보며 우리는 생각한다.

《아버지, 오늘이 내 생일인데 잠깐 들어왔다 가면 안되나요?》

그때에 중수회기를 내려놓은 최용남동무는 한동안 움직임을 몰랐다. 아버지를 종이 기다렸을 딸의 모습이 눈앞에 언저졌다.

가죽들이 미안스러운 마음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종대한 전환적계기

전세계의 초점이 조선반도에 쏠리고 있다. 불안과 우려속에 손에 땀을 쥐고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공동보도문이 발표된데 대해 일제히 환영하고 있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에서 공동보도문이 발표된것은 형에 대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과격에 처한 북남관계를 화해와 신뢰의 길로 돌려세우는 종대한 전환적 계기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상, 교류와 접촉을 활발히 하여 끊어진 민족적紐帶와 혈맥을 잇고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번혁을 가져와야 합니다.》**

공동보도문의 발표는 민족의 운명을 위기에 구원할 역사적행위이다. 전쟁이라는 재난의 난파도를 물리내고 정화를 안아온 그야말로 극적인 전환이다.

무력충돌로 치달던 위험천만한 위기가 가시되고 북남사이에서 평화와 안정, 화해와 협력의 전환적극면이 열리게 된것은 유례의 미판된것이다. 운명적 순간에 좌절 북으로 전환시키는 성과가 이룩된것은 전적으로 북남사이의 군사적충돌을 막고 관계개선의 길을 열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결한 의지와 원칙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이번에 우리는 공동보도문과 북남고위급 긴급접촉을 열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타개함으로써 민족의 머리위에 드리웠던 전쟁의 막연구름을 밀어내고 조선반도와 지역적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였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결과는 민족의 운명을 걱정하고 평화를 귀중히 여기는 승호한 리들이 안아온 승리이다. 그 누구의 지

도도 동정도 없는 력사의 폭풍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조국의 존엄과 자주권, 혁명의 정취를 민족의 안전을 지켜냈다 는 여기에 우리의 커다란 긍지와 자부심이 있는것이다.

사실 북과 남은 애당초 이념과 같은 비정치적인 사에 달려들지 않았어야 하였다. 이번 사태는 원인을 사건의 원인과 일방적으로 판단하고 일방적으로 행동한 결과에 일어난것이다. 서로 마주 앉아 사태의 진상을 해명하고도 전에 일방적행동으로 상대방을 자극하는 경우 정세만 긴장시키고 나아가서는 군사적충돌을 불러올수밖에 없다는것을 최근의 위험천만한 사태는 똑똑히 보여주었다.

이번 공동보도문의 발표는 북남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빠른 시일안에 개최하여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나가기로 한것을 비롯하여 군사적대결과 충돌을 막고 관계개선을 도모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대결을 밝혀놓았다. 이것은 북과 남이 더 이상 과거에 얽매지 않고 민족의 장래 운명, 북한의 리익을 앞에 놓고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길로 손잡고 나아가겠다는것을 온 민족앞에 확약한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과 공동보도문에 대해 적극 지지반영하고있고있는데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온 민족앞에 확약한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가 이번 북남고위급긴급접촉과 공동보도문에 대해 적극 지지반영하고있고있는데도 그대로 놓아두는 것은 온 민족앞에 확약한것이다.

북남관계에서 대전환, 대번혁을 일으켜 자주통일의 대로를 열어 나가려는 우리의 힘에 변화의 발표는 우리 민족의 힘을 합쳐 북남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을 앞당기려는 승호한 자각을 배태해 주는 소중한 민족적행위이다.

북남고위급긴급접촉의 전과정과 그 결과에 합의된 이후부터 북남관계에서 전환적극면을 열어놓았다. 바로 여기에 이번 접촉이 가지는 의의가 있다.

이번에는 북과 남이 일촉즉발의 사태를 해소하는데 머물것이 아니라 관계개선과 자주통일의 길로 전진해나갈것을 요구하

경축행사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돐에 즈음하여 주바혁명무력성소속 호세 마르티군사기술대학에서 경축집회와 영화감상회, 예술공연이 26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부스총지와 함께 계시는 사진문이 모셔져있었다.

행사에는 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주바혁명무력성 제1부상 겸 혁명무력참모장인 알바로 로베스 미야에를 비롯한 혁명무력성 일군들, 호세 마르티군사기술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조신식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갔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주바국가악의 주악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영화 《

선군에서 즈음하여 방글라데시군정지연수소 조원장 영. 자한기르 칸이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를 시작하신 력사의 날에 즈음하여 불태의 선군정치로 세 계지주화위업실현에 불멸의

세의 침략행동에 대처할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보유하고있

은 조신의 과학자, 기술사들은 무장장비현대화와 새 기술개발에서도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할수 있었다.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은동지께서는 언제나 주바와의 협조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있다.

올해 선군건설은 주바와 조선사이의 외교관계설정 55돐과 민족의 통일을 실현하며 계속되는 지평의 넓이를 넓혀나가기 위하여 조신인민의 투쟁에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조선인민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행사참가자들은 주바혁명 무력성에서 준비한 예술공연을 관람하였다.

주바의 강성국가건설과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신인민의 투쟁에서 성과를 거두기를 바란다.

사회주의조선의 정의의 위업을 위한 지지와 연대성을 보인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 만세! 필승불패의 선군정치 만세!

날로 발전하는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세계적진 흥기, 기, 원천고부, 석생산국이다. 1970년 이후부터 공업을 위주로 하는 경제의 다각화정책을 실시하고있다.

말레이시아는 아세안신권으로서 지역나라들과의 협조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지난 2월 인도네시아와 쌍무역을 발전시켜나가기로 합의하고 3월에는 싱가포르와 방위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해나갈데 대한 문건에 조인하였다.

사회적진보와 번영, 발전을 위한 말레이시아의 노력은 온갖 이 박애의 뜻을 맺어 결정을 하였다. 오늘날 말레이시아 독립 58돐이 되는 날이다.

정세안정에 백해무익한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남조선에서 지난 17일부터 시작되었던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이 28일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북과 남에 걸쳐지고있는 권이란 현실을 놓고보아도 그렇다. 우리 공화국의 그 어디에서나 당장적인 혼란을 승리의 대추진으로 맞이하기 위한 대전설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을지 프리덤 가디언》합동군사연습을 빌려보면서 그것에 《내선적》이고 《방어적》이라고 하고있다. 하지만 그 어떤 미사사기들을 동원해도 이 전쟁행위의 침략적성격은 가려지지 않는다.

이런 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의 전지력을 작전범위로 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거기에는 중무장한 미해병대와 남조선군과의 방대한 무력은 물론 각종 행정기관들과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었다. 이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방위적행위를 위한 것이었으며 전쟁과 후방에 공격적으로 편성되었다는것을 말해 준다.

이런 합동군사연습은 남조선의 전지력을 작전범위로 하여 실시되었다. 또한 거기에는 중무장한 미해병대와 남조선군과의 방대한 무력은 물론 각종 행정기관들과 수많은 민간인들까지 동원되었다. 이것은 이번 합동군사연습이 방위적행위를 위한 것이었으며 전쟁과 후방에 공격적으로 편성되었다는것을 말해 준다.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이번을 우리와 좋은 합의를 위한 기회로 여기고 있다. 이 전쟁행위는 그 누구의 《금부사》에 대한 현실에 작성된 《작전계획 5027》과

필승불패의 선군정치 만세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새기신 55돐에 즈음하여 주바혁명무력성소속 호세 마르티군사기술대학에서 경축집회와 영화감상회, 예술공연이 26일에 진행되었다.

행사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피델 카스트로 부스총지와 함께 계시는 사진문이 모셔져있었다.

행사에는 주바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주바혁명무력성 제1부상 겸 혁명무력참모장인 알바로 로베스 미야에를 비롯한 혁명무력성 일군들, 호세 마르티군사기술대학의 교직원,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이 나라 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직원들이 조신식사회주의를 건설해나갔다.

우리 나라 애국가와 주바국가악의 주악으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먼저 우리 나라 영화 《

선군에서 즈음하여 방글라데시군정지연수소 조원장 영. 자한기르 칸이 20일 담화를 발표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국방력강화와 사회적진보를 위하여

합동훈련 진행 집단안전조약기구의 집단신속반응무력합동훈련 《협동작전-2015》가 최근 로씨야에서 시작되었다.

훈련에는 기구성원국들인 로씨야, 아르메니아, 벨라루스, 까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의 군인들이 참가하였다.

국방건설에 힘을 북돋아줄 표명 인도네시아대통령 조코 위도도가 14일 한 연설에서 자체의 힘으로 국방건설을 다그쳐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그는 정부가 민족산업에 의거하여 국방력을 강화하는데 신장적인 힘을 넣고 국방부문에 대한 국가예산



브라질의 커피밭

오늘의 세계 최근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어느 한 연구소가 보고서를 발표하여 나라의 한심한 인권실태를 개관하였다.

보고서는 미주리주의 페이슨에서 일어난 백인경찰의 흑인살해사건을 비롯하여 미국내에서 인권유린행위들이 방일할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또한 미국에서 주민들의 경제적 및 법적권리가 무참히 짓밟히고있으며 당국자 국내에서 불법무도한 도청감시행위를 일삼아 온데 대해서도 비난하였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미국이 미묘한 미국식 《자유》와 《인권》에 대해 운운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하였다.

《인권의 모범국》이라고 자처하는 미국의 인권상황이 얼마나 한심했으면 자국내에서까지도 비난과 우려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는가. 미국에서 흑인들은 괴롭혀 다스리는 최 악한 지배 계급을 차지하고 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이 이것을 끝장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에서 감행되는 인권유린행위의 피해자는 흑인들만이 아니다. 미민방수사국 등 사법경찰관들이 2~3년동안 페이슨에서 수감되어 미국시민들의 주 권과 자유의 사소한 일이라도 지키지 못하도록 감시해온것으로 하여 사회적불의를 일컫는 사실이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사생활 및 재산권을 보호한다고 되어있는 헌법은 그야말로 명목뿐이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물에 나가도 샌다고 미국은 국내에서만 가다 해외에서도 인권유린행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세계의 80 여곳에 도청시설을 설치해놓고 수십개 나라 고위직인물들은 물론 국가수반까지 모두 도청 대상으로 정하고 불법무도한 감시행위를 일삼아온것은 그 단적 실례이다.

제반 사실들은 세상에 보기 드문 인권범죄 미국의 전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이러한 인권유린의 황초 미국이 《인권관련행세》를 하며 다른 나라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이라프지러움 시비하는것은 참으로 가소롭지 않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거들거리에 끌어들이고 흑인 브리태니커 맥크리프는 무고한 흑인들에 대한 경찰들의 계속되는 살인행위를 정당화하면서 사회

미국의 독점적인 전지구위지측정체계에 대항하여

얼마전 로씨야가 니카라파에 글로벌 위성항법체계(GBPS)를 도입하기로 이 나라와 합의하였다.

이것은 로씨야에서 글로벌 위성항법체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GPS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위성항법체계의 도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로씨야는 2007년에 전국적 규모에서 글로벌 위성항법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로씨야의 위성항법체계가 글로벌 위성항법체계의 도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로씨야는 2007년에 전국적 규모에서 글로벌 위성항법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목표를 내세우고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로씨야의 위성항법체계가 글로벌 위성항법체계의 도입이 가능하게 하였다.

어리고 그것을 일제 비밀에 붙이면서 다른 나라들을 틀어쥐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GPS에 없애버렸을 적지 않은 나라들이 미국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미국은 GPS를 군사분야에까지 광범위 리용하면서 군사적목적을 유지하려고 하였다. 1990년대에 있는 페르시아만전쟁과 발칸전쟁때 유입이 GPS를 제대로 리용하지 못하도록 미국이 작전을 부린 사실, 지난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GPS를 리용하여 이라크를 손쉽게 격파한 사실 등이 그 대표적실례이다.

제반 사실들은 GPS를 리용하는 나라들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미국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이런것으로 하여 유럽동맹은 미국의 GPS에서 벗어나 자기의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가질 결심을 확고히 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갈릴레오개발을 적극 추진시켜왔다.

오늘날 전지구위지측정체계 분야에서 미국의 독점적지위는 나날이 허물어지고있다. 앞으로 독자적인 위성항법체계를 가질려는 나라들은 더욱 늘어날것이다.